

천주가사 <소경탄식가>와 <소경자탄가>의 표기 및 어휘의 대조 연구

유 경 민(전주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4. 음운 현상과 관련된 표기 방식의 변화 |
| 2. 연구 대상 및 선행 연구 | 5. 어휘 표현의 교체 |
| 3. 연철에서 혼철까지 | 6.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글본 천주가사 중 지금까지 관련지어 설명된 적이 없는 필사본 「소경탄식가」(1931.03.)와 이것을 개작하여 등사본으로 간행한 「소경자탄가」(1958.10.)의 표기와 어휘 표현의 변화를 대조하여 같은 시기의 문헌에서 볼 수 있는 언어적 차이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이는 저작자의 연령이나 출생지와도 연관될 수 있고, 두 문헌의 집필 중간에 공표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년)’의 영향일 수도 있다. 두 문헌을 대비하는 탐구 과정 속에서 이를 밝혀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국어 시기에 간행된 두 문헌에서 마치 다른 시기의 작품처럼 보이는 언어적 요소들을 대조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언어의 변화가 일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말과 모든 문헌의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종교 관련 문헌의 보수성으로 인하여 언어 변화가 더디게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점, 원본의 저작자인 박제원이 79세에 창작한 작품으로 저작 당시보다 고답적인 언어 표현이 구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원작자는 경상도

출신이고 수정자는 전라도 출신이라는 점 등을 그 원인으로 추정하며 두 작품을 대조 연구한다.

핵심어 : 천주가사, 소경탄식가, 소경자탄가, 필사본, 국어학, 국어사, 어휘 변화, 표기법, 연철, 혼철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글본 천주가사 중 지금까지 관련지어 설명된 적이 없는 필사본 「소경탄식가」(1931.03.)와 「소경자탄가」(1958.10.)를 대비하여 같은 시기의 문헌에서 볼 수 있는 어휘 표현과 표기법의 차이를 탐구하고 그 원인을 밝혀 설명하는 것이다. 천주¹⁾가사는 서양의 종교 문화가 정착되어 민중 가운데로 퍼져나간 한글 문학 작품으로서 노래로 불려질 것을 염두에 두고 창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원본은 지역에 따라, 가창자에 따라 조금씩 개작되어 전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문화적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국어학적 문헌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소경탄식가」를 창작한 박제원(1854~1935)은 경상도 거창에서 출생하여 대구에서 교리강사로,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전도사로 활동하였는데, 「소경탄식가」는 충남 강경 화산(나바위) 성당에서 창작되었다. 「소경탄식가」에 반영된 방언적 특징은 『한글마춤법통일안(朝鮮語綴字法統一案)』(1933) 공표 이후에 개작된 「소경자탄가」와의 대비를 통해 더 분명해진다. 「소경탄식가」 창작 당시 79세였던 박제원은 이미 소경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받아 적도록 하여 작품을 남겼다.²⁾ 등사본으로 간행된 「소경자탄가」도 같은 곳에서 만들어졌으나 원

1) '천주(天主)'는 '상제(上帝)'와 함께 중국에서 만들어진 성경 번역어의 하나로 개신교의 '하나님'에 대응되는 그리스도교의 용어이다.

본이 창작되고 27년이 지난 당시 잡지 간행을 맡고 있던 젊은 수사에 의한 개작이었기 때문에 어휘와 표기법이 현대적으로 수정되었다. 작성 시기로는 27년의 차이지만 79세의 원작자와 젊은 수사의 연령을 감안한다면 60여 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수사가 원문을 수정한 까닭은 독자 및 청자를 배려하여 전달력을 높이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언중의 현실 언어가 급변하던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더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당대의 현실 언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정하였을 것이다. 특히 한글맞춤법이 공표된 이후에 개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기의 변화가 많다.

조선이 근대적 문호 개방을 시작하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막을 수 없었던 외래 문물의 유입에 따른 영향은 언어에도 자연스럽게 그 흔적을 남겼다. 번역 성경³⁾이나 천주가사 등에서 볼 수 있는 ‘이라린 (이라리오), 반로 (바오로)’ 등과 같은 외래어 표기가 가장 쉽게 드러나는 예이다. 이중모음 [io], [ao]를 ‘고’, ‘로’로 표기하는 방식은 개신교 관련 자료보다는 천주교 관련 자료에서 더 많이 확인된다. 그러나 「소경탄식가」와 「소경자탄가」는 길지 않은 작품이고, 갑자기 소경이 된 한 신자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가 많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래어 표기보다는 음운 표기 방식과 어휘 및 구절의 변화를 대조하며 두 작품의 특징을 설명한다. 천주가사가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라는 점,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누구나 창작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작품은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되었을 것임을 가

2) 이 과정에서 제자들이 임의적으로 내용이나 표현을 바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다만, 자자들이 필사하였기 때문에 창작자의 언어적 특징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적어도 박제원의 발음과 그가 구사하는 어휘 표현은 그대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받아 적도록 하는 상황이 제자 한 명만을 얹혀 놓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서(書)’는 현인이 주석을 붙인 글을 의미하고, ‘경(經)’은 성인이 기록한 상태나 산술(刪述)한 상태를 의미하는 ‘성경현서(聖經賢書)’라는 말과 관련된다. 이에 근거하여, 한국 천주교에서는 ‘성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지만 본고에서는 개신교 자료까지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성경’이라고 한다.

정한다. 같은 내용의 원작본과 개작본을 찾아 대비하는 본고의 연구 방식은 같은 내용을 표현한 텍스트의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고, 해당 시기의 언어적 특징을 밝히는 데에 활용될 수도 있으며, 이는 곧 국어사가 촘촘하게 기술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 연구 대상 및 선행 연구

본 연구는 호남교회사연구소의 전임소장이신 김진소 신부님의 자료실 정리에서 시작되었다. 영인본과 필사본, 등사본, 판권지 없는 복사본 등이 뒤섞여 있는 자료실은 이미 많은 천주교 관련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었고, 대부분의 천주가사는 『천주가사 자료집 上·下』(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0)에 제공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정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료들이 책장에 누워 있었다.

<그림1> 완주군 천호성지 김진소 신부님의 자료실 상황



자료실의 한 구석에서 1958년에 간행된 등사본 잡지 『새벽종』(「소경자탄가」 수록)과 고문헌 복사본 「소경탄식가」(1931년)를 발견하고 대조 작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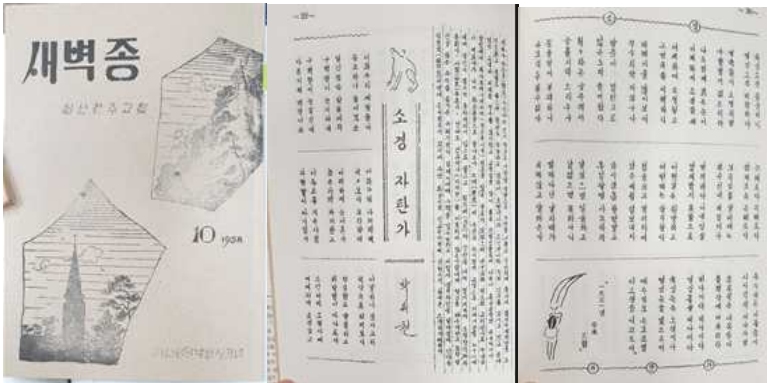
시작하였다. 『천주가사 자료집 上』(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0:295~298)의 설명을 보면 「소경탄식가」를 『새벽종』에 실어 소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조하여 확인해본 결과, 『새벽종』에 실린 것은 개작된 「소경자탄가」였다. 제목뿐만 아니라 두 작품의 표기와 어휘 표현 면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확인되어 연구가 시작되었다. 「소경자탄가」와 「소경탄식가」가 내용상 유사한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손질된 개작의 수준으로, 둘을 동일 작품이나 부분적으로 수정된 작품으로 보기가 어려웠다. 두 작품을 대조적으로 검토해보면, 『새벽종』에 수록된 「소경자탄가」(1958년)는 1931년의 박제원의 유고(遺稿)인 「소경탄식가」와는 별개의 작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개작되었다. 김진소 신부님의 설명을 빌면, 초기 천주가사를 후대인이 옮겨 적거나 노래로 전승하는 경우 편집자나 전승자에 의해 당대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개작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천주가사는 창작과 개작의 시간적 간극이 크지 않은데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이해되는 방향으로, 누구든지 얼마든지 변형시켜 적고 노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본 이후의 작품들의 변화가 적지 않다. 문헌 자료를 보존하고 문헌 자료를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대하는 입장에서는 원본을 대상으로 수정을 가한 작품 모두가 그 과정과 원인을 밝혀야 할 연구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작을 수정한 근거와 과정이 설명되어 있어야 하는데, 포교를 위해 내용 중심의 전수 목적이 우선시 된 천주가사는 이러한 정리 과정 없이 전해져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천주가사 자료집 上』과 『새벽종』에 수록된 「소경자탄가」(1958년)가 완전히 동일한 것을 보면, 최근에는 원작을 함부로 변형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이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소경탄식가」(1931년)와 「소경자탄가」(1958년)를 국어사적 연구 자세로, 즉, 동일 내용에 대한 두 이본을 통시적으로 대조 분석하는 방식으로 고찰한다.

<그림2> 고문헌 「소경탄식가」(1931)



<그림3> 『새벽중』에 실린 「소경자탄가」(1958)



<그림2>는 호남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된 빛바랜 필사본 「소경탄식가」이고, <그림3>은 『천주가사 자료집 上』과 『새벽중』에 실린 「소경자탄가」(1958년)이다. 『천주가사 자료집 上』(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0:295~298)에 수록된 「소경자탄가」(1958년)는 『새벽중』의 것과 동일하지만 『새벽중』은 세로쓰기로 되어 있고, 『천주가사 자료집 上』은 가로쓰기로 되어 있어 세로쓰기된 「소경탄식가」와의 대비를 위해 『새벽중』에 실린 「소경자탄가」를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두 작품은 1구 2행으로, 전체 78구 156행으로 집필되었다. 4·4조를 기조로 한 4음보의 연속체 4·4·4·4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었다. 다만 두 곳에서 변격을 보이는데, 63행 ‘창문이 열린고로 많은도적 들어왔다’와 78행 ‘예수마라아 은보요셉 이소경을 잇그쇼셔’가 그 해당 부분이다. 작품이 노래로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창작되었다면, ‘창무-운’, ‘예수마라’ 정도로, 음성적으로는 4·4·4·4조를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주가사는 일반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에 의해 작성되고, 간혹 국한혼용문이 확인되기도 하지만 한글본이 대부분이다. 형식보다는 내용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가사에 비해 장형(長型)인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밝혀진 천주가사는 약 200여 종(『천주가사 자료집 上·下』(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0)에 수록)에 이르는데 박해가 심하던 초기에는 주로 성직자와 양반층에 의해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고, 박해 이후에는 개인의 영성과 관련하여 자탄가류(自歎歌類)나 개화에 대한 내용이 창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소경탄식가」(1931)는 「탄식가」나 A로, 「소경자탄가」(1958)은 「자탄가」나 B로 나타낸다.

3. 연철에서 혼철까지

근대 개화기 이후 외래 문화 및 문물의 유입과 관련하여 언어적으로 가장 유기적인 관계에 문체는 외래어⁴⁾의 표기일 것이다. 근대국어 시기의 외래어 표기는 우선 고유명사와 일반명사가 다른 방식으로 정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고유명사는 가능한 한 원음에 가깝게 한글로 음역 표기하였는데, 고유명사의

4) 박용찬(2007:17)의 설명처럼, 사실 외국어와 외래어의 구분은 쉽지 않다. ‘표준어 규정’에 명시한 것처럼 외래어는 따로 사정할 필요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따로 사정한 적이 없다.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는 외래어는 국어 사전 편찬자의 자의적이고 비공식적인 외래어 사정 결과일 뿐이고, 실제 외래어로 보기 어려운 외국어도 국어사전에 상당수 올라 있다.

표기는 문자와 관련하여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음차하여 번역한 것이다. 음역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서양어를 직접 음역하는 방식과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자어로 표기한 것을 우리식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간접 음역 방식이다 (유경민 2019: 361-363). 즉, ‘예수’를 ‘耶蘇’라고 하지 않은 것은 직접 음역한 것이고, ‘에베소’를 ‘이불소(以弗所)’, ‘필리핀’을 ‘비율빈(比律賓)’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 음역의 방식이다. 그러나 일반명사는 원음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우리의 생활권 안에서 해당 외래어, 혹은 외국어에 적합한 대응어를 찾아 우리 문화에 맞는 표현으로, 즉 ‘다시쓰기’⁵⁾를 하는 방식으로 토착화시켰다. 예를 들면, 헬라어의 ὑποπόδιον (휘포포디온, 발판, 마태5:35)을 영어 성경에서는 ‘footstool(1611/1973/1977)’로, 중국어 성경에서는 ‘脚几(각게, 1823)’, ‘足凳(족등, 1852/1864)’, ‘脚凳(각등, 1872)’으로 번역하였는데, 한국어 성경에서는 국한혼용문 성경에서는 한문 성경의 영향으로 ‘足凳(족등, 1906)’, ‘발凳狀(-등상, 1925)⁶⁾’으로 표현하였고, 국문 성경에서는 ‘발도듬(1900)’, ‘발등상(1904/1906)’으로 번역하였다. 이처럼 외래어의 일반명사는 고유명사의 음역 표기와는 달리 대부분 우리 문화에 맞는 말을 찾아 ‘다시쓰기’ 하는 식으로 정착되었다. 다만, 천주교사는 성경 번역처럼 외래 문헌을 직접 번역한 작품이 아니고 민중이 일상 속에서 자신의 신앙심과 의지를 한국어로 창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외래어의 표기가 많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두 작품에서는 ‘예수마리아 은보요셉/예수성모 은보요셉’의 예가 확인될 뿐이다. ‘예수, 요셉’은 음역된 예이고, ‘마리아→성모’는 의미를 살려 한자어로 다시쓰기한 번역의

5) 이것을 문화화(enculturation), 문화 변용(acculturation), 또는 토착화(inculturation)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주로 신학적, 사회학적 의미로 신앙과 문화의 접촉, 문화와 문화의 만남을 논의할 때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원어나 영어에서 한국어로, 혹은 한자어에서 고유어로 언어 표현이 바뀌는 것을 ‘다시쓰기’라고 명명한다.

6) 『奇一新譯신구약전서』(개일 1925)의 ‘발凳狀’이라는 표현은 1904년 공인역본 『신약전서』에서 ‘발등상’이라고 수정된 어휘를 한자어는 한자 표기화하여, 즉 바꿔쓰기를 하여 번역한 것이다.

예이다.

또, 표기법 측면에서 볼 때, 「탄식가」에서는 음소적 원리에 기초한 연철 표기와 실제 발음 중심의 중철 표기가 많이 확인된다. 이에 반해 「자탄가」는 형태음소적 표기, 즉 분철 표기가 주를 이룬다.

- (1) 가. 드러보쇼(2A), 조흔용모(39A), 너머진다(66A), 이려셔니(70A), 비러본다(90/91/92/93/94/106A), 썸러지면(107A), 만흔도적(126A), 드러왔다(126A), 마니보아(123A)
- 나. 들어보쇼(2B), 좋은용모(39B), 넘어진다(66B), 일어서니(70B), 빌어본다(90/91/92/93/94/106B), 떨어지면(107B), 맑은도적(126B), 들어왔다(126B), 많이보아(123B)
- 다. 열분어름 밝닌다시(64A), 밝근눈이(119A), 업사리라(118A), 날업스면(144A), 업슬적에(75A), 갈수맛게(76A), 빗치업서(89A), 업슬찌에(109A)
- 르. 옹은어름 밝는구나(64B), 밝은눈이(119B), 없으리라(118B), 날없으면(144B), 없을적에(75B), 갈수밖에(76B), 빛이없어(89B), 없을때에(109B)
- (2) 가. 곁헤잇나(56A), 옷이젓네(72A), 아모빛도(83「탄식가」), 남의빛을(90「탄식가」), 티양빛도(91A), 티움빛도(92A), 성신빛도(93A), 불빛까지(94A), 불수잇나(96A), 본빛업서(105A), 지엿구나(124A), 드러왔다(126A), 문을달아(129A), 불수업다(130A), 달게받지(136A), 날잇스면(143A)
- 나. 곁에잇나(56B), 옷이젓네(72B), 아모빛도(83B), 남의빛을(90B), 태양빛도(91B), 태움빛도(92B), 성신빛도(93B), 불빛까지(94B), 불수잇나(96B), 본빛없어(105B), 지엿구나(124B), 들어왔다(126B), 문을달어(129B), 불수없다(130B), 달게받지(136B), 날잇으면(143B)

A는 1931년에 간행된 「소경탄식가」이고, B는 1958년에 간행된 「소경자탄가」인데, (1가)은 흘받침의 어간을 어미와 이어 적기, 즉 연철 표기를 한 것이고, (1나)은 겹받침 어간이 어미와 연철 표기된 예를 보인 것이다. (1나)과

(1ㄷ)은 분철 표기이다. (예2)는 A가 7중성 표기임⁷⁾, 즉 A 문헌이 음소적 표기임을 방증하는 예이다.

많지는 않으나 어간(어휘형태소)과 어미(문법형태소)의 결합에서 연철과 분철의 과도기적 표기 형태로 중철(重綴) 표기와 혼철(混綴) 표기가 확인되기도 한다. 중철은 어간말 자음을 받침으로도 적고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도 적는 중복된 표기 방식인데, ‘넙피’, ‘넙피’와 같이 동일 계열의 평자음을 받침에 쓰고, 유기음을 초성에 쓴다. 혼철은 재음소화 표기라고도 하는데⁸⁾ ‘넙히’, ‘넙히’와 같이 유기음을 평음과 /ㅎ/으로 분리하여 적는 방식이다.

또, A에서는 자음 병서가 초성에서만 확인되는데, B에서는 (1ㄷ)의 ‘씩’, (1ㄷ)의 ‘때’, (2ㄴ)의 ‘까지’, ‘있-, -었-, -왔-, 없-’ 등에서의와 같이 초성과 중성에서 자음을 나란히 쓴 병서 표기가 확인된다.

- (3) ㄱ. 엇던씩난(138A), 차일쪽에(66A), 비올씩는(72A), 그도또한(105A), 썩러지면(107A), 잇그쇼셔(156A),
ㄴ. 어떤때는(138B), 차일쪽에(66B), 비올때는(72B), 그도또한(105B), 떨어지면(107B), 이끄쇼셔(156B)
ㄷ. 높흔가격(10A), 압헤눗코(41A), 집헝이를(46A), 꺾헤잇나(56A), 김흔못을(63A), 김고김흔(99A), 다른빛을(106A), 류슈갓훈⁹⁾(147A), 초로갓흔(149A)
ㄹ. 높은가격(10B), 앞에농고(41B), 집팽이를(46B), 곁에잇나(56B), 깊은곳을(63B), 김고김은(99B), 다른빛을(106B), 유수같은(147B), 초로같은(149B)
ㅁ. 맞츨리라(150A), 빗치업서(89A), 성총빗치(107A)
ㅂ. 마차리라(150B), 빛이없어(89B), 성총빛이(107B)

7) 「소경탄식가」에서 ‘ㄷ’ 받침 표기는 단 한 번도 확인되지 않는다.

8) 동일 계열의 평자음자를 선행 음절의 받침으로 쓰고, ‘ㅎ’을 후행 음절의 초성에 쓰는 방식을 중철 표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재음소화 표기, 혹은 혼철 표기라고 한다.

9) 뚜렷하게 ‘ㅅ’으로 보인다.

(3ㄱ~ㄴ)은 경음 표기, (3ㄷ~ㄹ)은 격음 표기의 예를 보인 것이다. (3ㄱ)을 보면, 20세기 현대국어 시기의 문헌인데도 경음을 ‘ㅅ’계 합용 병서로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3ㄷ)을 보면, 종성이 격음 ‘ㅊ, ㅌ, ㅍ, ㅋ’인 경우, A 문헌에서는 ‘ㅅㅎ, ㅈㅎ, ㄱㅎ’과 같이 재음소화(혼철)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A 문헌은 (3ㄷ)의 ‘빛이>빚치’와 같이 격음을 소리대로 옮겨 적는, 즉 ‘ㅊ’을 ‘ㅅㅊ’으로 중철 표기를 하기도 했다. B문헌은 ‘빛을’과 같이 대부분 분철로 표기되긴 하였으나 ‘마차리라’와 같은 연철 표기와 ‘집팽이’와 같은 중철 표기가 확인되기도 한다.¹⁰⁾

두 문헌의 표기를 보면, A는 음소적 원리에 기초한 연철 표기와 ‘ㅅ’계 합용 병서, 중철, 혼철, 용언 어간이 ‘ㅎ’ 종성일 때 ‘조흔, 만흔’과 같이 모음 어미에 연철 표기하는 등 발음을 중심으로 여러 표기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반면, 『한글마춤법통일안(朝鮮語綴字法統一案)』(1933)이 공표된 후에 집필된 B는 현대국어와 같은 형태음소적 표기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천주가는 근-현대국어 시기에 대중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중 하나로 여기에서 확인되는 특징을 당대의 현실 언어적 특징으로 보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탄식가」와 「자탄가」는 『한글마춤법통일안(朝鮮語綴字法統一案)』(1933)의 공표를 사이에 두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표기법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국어학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의의가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 4장에서는 연철, 분철, 중철, 혼철 표기 외에 음운 현상과 관련된 표기의 문제를 탐구한다.

4. 음운 현상과 관련된 표기 방식의 변화

음운사적 변화는 자음과 관련된 변화와 모음과 관련된 변화 두 측면에서

10) ‘집팽이’와 ‘집팽이’는 혼재는 18세기 문헌에서부터 확인된다. 형태적으로 볼 때, ‘꺠+양이’의 구성으로 본다면, ‘집팽이’는 중철, ‘집팽이’는 혼철 표기라고 할 수 있다.

살필 수 있다. 본장에서 자음과 관련하여서는 구개음화, 두음법칙, ‘ㅇ’ 탈락, 어두자음군의 문제를 다루고, 모음과 관련하여서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ㆍ’의 비음운화, 후설평순모음의 합류, ‘ㄴ>ㄹ’의 변화를 살피며 국어사적으로 두 작품에서 확인되는 실제적 간극 양상을 설명한다. 그러나 두 문헌에서 확인되는 표기의 차이가 방언 영향을 비롯한 실제 음운 현상의 현재성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음운 변화는 이미 완료되었으나 이것이 표기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문제인지, 즉 두 문헌의 차이는 표기상의 관습 차이에 불과한 것인지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다. 또, 두 작품의 간행 사이에 『한글마춤법통일안(朝鮮語綴字法統一案)』(1933)’의 공표가 있었음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4.1. 구개음화

현대 한국어의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 실제 발음을 중심으로 분류해 배치해 보이면 다음과 같은 모형이 되는데, /s/계열과 /L/, /r/이 이음 실현의 변이 관계에 있다.

<표1> 현대 한국어의 자음도

	양순음 [+前部, -혀끝]	치조음 [+前部, +혀끝]	경구개음 [-前部, +혀끝]	연구개음 [-前部, -혀끝]	성문음 [+저위]
파열음	ㅂ	ㄷ		ㄱ	
	ㅃ	ㄸ		ㄲ	
	ㅍ	ㅌ		ㅋ	
비음	ㅁ	ㄴ		ㅇ	
마찰음		ㄷ			ㅎ
		ㄸ			
파찰음			ㅈ		
			ㅉ		
			ㅊ		
유음		ㄹ			

/s/과 /ss/은 /i/나 /y/ 앞에서는 경구개음으로 실현되고, 그 외의 환경에서는 치조음으로 실현된다. /L/은 /y/ 앞에서는 경구개음으로 실현되고, 그 외의 환경에서는 치조음으로 실현된다. 이 논문의 자료에서 /L/이 /i/ 앞에서도 변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자료가 방언 자료임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r/은 음절말과 /r/ 뒤에서는 /l/로 실현되나 음절말이어도 /ㅎ/ 앞에서는 /r/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고, 음절말과 /r/ 뒤 외의 환경에서는 /r/로 실현된다. 모음 사이에 /rri/이 올 때 대부분은 치조음 [ll]로 실현되고, 반모음 /y/ 앞에서는 경구개음으로 실현된다. /r/은 /i/앞에서는 경구개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rri/이 /y/ 앞에 올 경우, 바로 앞의 /r/이 경구개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앞의 /r/까지도 동화를 입는다. /s/, /L/, /r/은 정확히는 치조-경구개음 음소인 것이다. 즉, 치조와 경구개라는 조음 위치가 이음의 차이는 가져오지만 다른 음소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어에서 /c/계열과 /x/계열도 다를 바 없다. 그래서 <표1>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국어사적으로는 근대 국어 이후 치조음과 경구개음이 명확히 구분되어 ‘c’, ‘t’이 /i/나 /y/ 앞에서 ‘z’, ‘t’으로 바뀌는 구개음화 현상이 표기에 분명히 드러난다. 구개음화는 /i/나 /y/는 전설 고모음으로서 이들 모음 뒤에서는 다른 조음위치의 자음보다 경구개음이 가장 발음하기 쉽기 때문에 다른 조음위치의 자음들이 자연스럽게 경구개음으로 바뀌는 일종의 동화 현상이다.

(4) 가. 어화우리 베행들아(1A)

나. 어화우리 제형들아(1B)

다. 도흔경기 불슈업고(32A)

르. 좋은경개 불 수 업고(32B)

마. 텃방디축 가다가서(80A)

바. 천방지축 가다가서(80B)

사. 텃당직로 갈수업고(110A)

오. 천당직로 갈 수 없고(110B)

즈. 디옥함정 위티하다(112A)

츠. 지옥함정 위태하나(112B)

(예4)에서와 같이 「탄식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B에서는 구개음화가 표기에 반영되어 있다. 음소 ‘ㄷ’이 /i/, /y/ 앞에서 다른 음소 ‘ㅈ’으로 바뀌는 현상은 남부 방언에서 먼저 발생하였다. 경상 방언이 반영된 중간 두시언해(重刊 杜詩諺解)는 17세기 중엽에 이미 많은 ‘ㄷ’ 구개음화를 보여준다. 중앙 방언에서 ‘ㄷ’ 구개음화는 18세기 문헌에서야 활발하게 나타난다. ㄷ, ㅌ, ㅍ이 ㅣ모음이나 상향이중모음 ㅑ, ㅓ, ㅕ, ㅛ, ㅜ 앞에서 ㅈ, ㅊ, ㅍ으로 변화하는 ㄷ구개음화 현상은 17세기에 남부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 18세기에는 중앙에서 간행된 문헌에서도 ㄷ구개음화를 겪은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논의되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ㄷ 구개음화의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유경민, 2013:33).

- ① 언해문에서 한자음의 구개음화만이 확인된다면 그것은 ‘ㄷ 구개음화’의 초기 단계에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자음에서의 구개음화가 고유어에서보다 먼저 일어나기 때문이다.
- ②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의 경계에서 구개음화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구개음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단계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ㅈ티, ㄱ티, ㆁ티’가 ‘ㅈ치, ㄱ치, ㆁ치’로 나타나는 예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③ 문법형태소에서의 ‘ㄷ 구개음화’가 확인된다면 구개음화가 상당히 진행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부정부사형 어미 ‘-디’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 ④ 어휘형태소 내부에서의 ‘ㄷ 구개음화’가 확인된다면 그것은 ‘ㄷ 구개음화’가 거의 일반화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탄식가」는 20세기의 문헌인데도 ㄷ구개음화를 겪기 이전 형태가 확인된다. 이것이 종교 텍스트가 갖는 보수적 특징 때문인

지, 경상도 방언의 영향인지는 좀 더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탄식가」를 27년 후에 전라도에서 수정한 「자탄가」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반영된 형태로 표기되어 있다. 「탄식가」의 창작자가 나이가 많아 19세기적 언어를 구사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¹¹⁾ 본 연구에서는 「탄식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자탄가」에만 구개음화가 반영되어 표기된 것을 구개음화가 발달된 남부지방의 방언적 특성이 표기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4.2. 두음법칙

‘ㄴ’도 /i/, /y/ 앞에서 ‘니나녀뇨뉴 > 이야여요유’와 같은 두음법칙이 실현되나 「탄식가」와 「자탄가」에서는 ‘ㄹ>ㄴ’, ‘ㄹ>ㅇ’ 두음법칙만이 확인된다.

두음법칙1: 한자어에서 어두의 /ㄹ/은 /ㄴ/으로 바뀐다. /ㄹ/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老人’을 ‘노인’으로 표기하는 것과 같이 두음법칙이 적용된다. /ㄹ/은 모음이나 /ㄹ/ 뒤에만 올 수 있다.

두음법칙2: 어두의 /ㄴ/과 /i, y/의 연쇄, 즉 /ㄴ/과 /ㅏ, ㅑ, ㅓ, ㅕ, ㅗ, ㅛ/의 결합이 어두에 오면, ‘녀자’/→/여자’와 같이 ‘ㅇ’으로 표기한다. ‘ㄴ’ 두음법칙은 ‘ㄴ’의 구개음화(음소 ‘ㄴ’이 /i/, /y/ 앞에서 이음 ㅁ으로 실현되는 현상)의 결과이다.

두음법칙3: 어두의 /ㄹ/과 /i, y/의 연쇄는 두음법칙1의 과정을 거쳐 두음법칙2가 적용되어 ‘ㅇ’으로 표기된다. 예를 들면, ‘烈士(렬사)’의 경우, 우선 /ㄹ/ 두음법칙 때문에 /렬사/가 되고, 그 다음에 /ㄴ/ 두음법칙 때문에 /열사/가 된 것이다.

두 작품에서는 ‘두음법칙2’가 반영된 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11) 두 작품의 간행된 시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27년의 시간 차이가 나지만 「탄식가」는 79세의 노인이 창작하였고, 「자탄가」는 젊은 수사가 만들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된 언어의 차이는 60년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탄식가」가 1931년에 창작되었고, 이때 창작자가 79세였다면 그가 사용하는 실제 언어는 19세기 말의 언어 상황과 유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박제가의 언어적 특징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해석은 지양하였다.

- (5) ㄱ. 남녀로유(53A)
- ㄴ. 남녀노유(53B)
- ㄷ. 빅냥(4/5/6A)
- ㄹ. 백량(4/5/6B)

(5ㄱ-ㄴ)에서는 ‘로>노’가 확인되는데, (5ㄷ-ㄹ)에서는 A에서는 ‘냥’이 B에서는 ‘량’이 확인된다. 자료가 음보를 맞추기 위해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 앞의 단어와 연결된 하나의 단어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탄가」에서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역시 「자탄가」가 현대적 맞춤법에 더 맞추어져 있음을 시사하는 근거이다.

- (6) ㄱ. 령신(104/116/154A), 령육(117A), 령약(135A), 류슈(147A)
- ㄴ. 영신(104/116/154B), 영육(117B), 연약(135B), 유수(147B)

(6ㄱ-ㄴ)에서는 「탄식가」의 ‘령, 령, 류’가 B에서 ‘영, 연, 유’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음법칙으로 인한 변화형이 유형별로 확인되기는 하나 역방향의 표기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에서 창작된 작품으로서의 특성, 즉 방언의 영향으로 보인다.

4.3. 어두 자음군의 된소리 표기화

「탄식가」의 ‘스’계 합용병서가 B에서는 각자병서로 표기된 예들이 확인된다. 이전 시기의 ‘ㅂ’계 합용병서는 보이지 않고, ‘스’계 합용병서가 각자병서로 된소리의 표기가 통일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스’계 합용병서 중 ‘혀-’(引)에 해당하는 ‘혀-’ 표기는 보이지 않는다.

- (7) ㄱ. 꽃(30A), 꺼질씨에(111A), 불빛씨지(94A), 상주씨서(127A)
- ㄴ. 꽃(30B), 꺼질때에(111B), 불빛까지(94B), 상주께서(127B), 부끄러워(68B), 갈수밖에(76B)

- ㄷ. 눈을뜨고(36/38/40A), 썩(59/67/71/72/95/109/111/138/145A), 쏘한(73/105A), 찌러지면(107A)
- ㄹ. 눈을뜨고(36/38/40B), 때(59/67/71/72/95/109/111/138/145B), 또한(73/105B), 떨어지면(107B)

- ㅁ. 우뻑지뻑(61A)
- ㅂ. 우뻑지뻑(61B)

- ㅅ. 쪽(66A), 썩어엷다(78A)
- ㅇ. 쪽(66B), 짝어엷다(78B)

특이한 것은, 「탄식가」의 ‘번쩍한다(84「탄식가」)’가 「자탄가」에서 ‘번척한다(84B)’와 같이 격음으로 표기된 예이다. 전라도에서는 ‘저기>찌기/치기’와 같이 ‘ㅈ’ 발음을 ‘ㅊ’이나 ‘ㅉ’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영향으로 이해된다. 또, 방언권에서 의태어나 의성어는 다른 단어에 비해 유사한 음으로의 혼기가 더 잦았음도 알 수 있다.

4.4.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형태소 내부의 ‘ㅈ’ 계열과 ‘ㅅ’ 계열 뒤의 /y/가 「탄식가」에서는 표기에 반영되어 있고, 「자탄가」에서는 모두 탈락되었다. 즉 전라도 방언의 영향을 받은 「자탄가」의 표기에서는 형태소 내부의 ‘ㅈy’, ‘ㅅy’ 연쇄가 불허되는 형태소 구조 조건이 확인된다.

- (9) ㄱ. 일신천금(3A), 비금쥬슈 번성하나(25A), 방춘삼월 호시절에(29A), 쥬구월에(31A), 불슈업고(24/26/28/30/32/34/38/40A), 가권서로(35A), 조석상을(41A), 갈슈업셔(47A), 자최소리(50A), 익경으로(53A), 부축한다(54A), 이리셔니(70A), 변쇼길이(74A), 업슬적에(75A), 할슈업고(77A), 텃방디축(80A), 이것져것(85A), 각설하나(86A), 성신빛도(93A), 일월성화(95A), 성총빗치(107A), 성신총광(109A), 디옥함정(112A), 나도전에(119A), 무슈죄악(124A), 만

흔도적(126B), 잠세보속¹²⁾(132A), 보속인출(133A), 제일이니(134A), 이니인성(135A), 남은세월(140A), 지체안코(146A), 류슈갓훗(147A), 성신총광(152A), 예수마라아(155A)

- ㄴ. 일신천금(3B), 비금주수 변성하나(25B), 방춘삼월 호시절에(29B), 추구월에(31B), 불수업고(24/26/28/30/32/34/38/40A), 가권서로(35B), 조석상을(41B), 갈수없어(47B), 자최소리(50B), 애정으로(53B), 부촉하다(54B), 일어서니(70B), 변소길이(74B), 없을적에(75B), 할수없고(77B), 천방지축(80B), 이것저것(85B), 각설하나(86B), 성신빛도(93B), 일월성화(95B), 성총빛이(107B), 성신총광(109B), 지옥함정(112B), 나도전에(119B), 무수죄악(124B), 많은도적(126B), 잠세보속(132B), 보속인출(133B), 제일이나(134B), 이내인성(135B), 남은세월(140B), 지체않고(146B), 유수같은(147B), 성신총광(152B), 예수성모(155B)

- ㄷ. 드러보쇼(2A), 한몸에서(3A), 가지고셔(13A), 더듬어서(42A), 갈슈업셔(47A), 극난일세(74A), 가다가셔(80A), 이제와셔(120A), 상주췌셔(127A), 잇그쇼셔(156A)

- ㄹ. 들어보소(2B), 한몸에서(3B), 갓이고저(13B), 더듬어서(42B), 갈슈없어(47B), 극난일세(74B), 가다가셔(80B), 이제와셔(120B), 상주췌셔(127B), 이끄쇼셔(156B)

- (10) ㄱ. 시로난(37A), 기다린다(48A), 인정으로(53A), 시로하야(69A), 생목에나(81A), 헛득하니(88A), 태양빛도(91A), 태음빛도(92A), 업슬췌에(109A), 위태하다(112A), 생각하쇼(113/114A), 사혁하니(122A), 공홀지턱(128A), 감슈인니(134A), 이니인성(135A), 잘보너자(140A), 시시각각 지나가면(148A), 내목숨이(149A)

- ㄴ. 새로나는(37B), 기다린다(48B), 애정으로(53B), 새로하여(69B), 생목에나(81B), 해득하니(88B), 태양빛도(91B), 태음빛도(92B), 없을때에(109B), 위태하나(112B), 생각하쇼(113/114B), 서혁하니(122B), 공홀지택(128B), 감수안내(134B), 이내인성(135B), 잘보내자(140B), 시시각각 지나가면(148B), 내목숨이(149B)

(9ㄱ-ㄴ)은 어휘형태소에서 ‘ㅅy’, ‘ㅅy’ 연쇄가 표기에 드러난 예이고, (9

12) 「탄식가」에는 ‘보속’과 ‘보속’이 혼기되어 있다.

ㄷ-ㄹ)은 문법형태소에서 ‘ɣy’, ‘ɣy’ 연쇄를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탄식가」에서 ‘불슈업고’ 형태가 주로 쓰였지만 ‘불슈업고(22/98/1000/102A)¹³⁾와 같은 표기가 확인되기도 한다. 반면, 「자탄가」에서는 ‘ɣy’, ‘ɣy’ 연쇄의 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예를 통해 「탄식가」가 창작되던 시기에도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꽤 정착되었고, 「자탄가」로 다시쓰기가 될 때엔 완전히 ‘ɣy’, ‘ɣy’ 연쇄의 표기화는 사라진 것으로 이해된다.¹⁴⁾

(예10)은 ‘·’가 포함된 이중모음 ‘이’가 ‘애’나 ‘아’로 변기된 예이다. 음가가 변해도 표기에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단모음화의 절대적 시기를 확정하기가 어렵지만 모음과 관계된 다른 음운 변화들을 살펴며 그 연대나 순서를 추정해볼 수 있다. ① 단모음화는 음라우트보다는 먼저 일어났을 것이다. 음라우트는 뒤에 오는 i, y의 영향으로 앞의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이 되는 현상인데 ‘ㅏ’[a]가 전설모음 [ɛ]가 되고, ‘ㅓ’[ɔ]가 전설모음 [e]가 되려면 [ɛ], [e]라는 모음이 국어 모음 체계 속에 이미 자리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모음화가 음라우트보다 먼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음라우트가 18세기와 19세기의 교체기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 있는 두 작품에서는 단모음화는 확인되나 음라우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 시기까지도 대중의 표기에 음라우트가 잘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탄식가」의 몇 예에서도 확인되는 것을 보면, 이 현상은 이미 보편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탄식가」의 ‘ㅓ’가 「자탄가」에서 ‘ㅓ’로 합류된 것을 보면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는 ‘·’의 제2단계 소실보다는 나중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13) 22A에서는 ‘불슈업고’ 형태가 확인되는데, 이 외의 「탄식가」 문헌의 모든 구에서 ‘불슈업고’ 형태로 확인된다.

14) 두 문헌의 표기를 통해 확인되는 ‘ɣy’, ‘ɣy’ 연쇄 문제를 경상도와 전라도 방언의 영향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즉, 「탄식가」에는 경상도 방언의 /j/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라도 방언에서는 ‘ɣy’, ‘ɣy’ 연쇄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 「자탄가」의 표기의 특징도 일치되고 있다.

4.5. ‘·’의 비음운화

16세기이후 ‘으/의’가 ‘으/의’나 ‘아/에’로 합류되고, ‘·’가 ‘ㅏ’, ‘ㅑ’, ‘ㅡ’ 등으로 비음운화된 것(‘햐야브리->하야브리-’, ‘햐야브리->해야브리-’, ‘달팡이>달팽이’, ‘일꾼->일꾼-’, ‘ㅁ득>ㅁ득>ㅁ덕’ 등)은 ‘·’가 이들과 조음 위치가 가까웠을 것이라는 추정의 근거가 된다.

- (11) ㄱ. 동요하나(2A), 구빅냥이(4/5/6/7A), 엇지햐야(9A), 햐와달이(21A), 명산디천 굉징하나(23A), 오곡빅과(27A), 도흔경기(32A), 형형식식(33A), 디면하나(35A), 시로나난(37A), 어린으햐(43A), 반편사름(44A), 어디어디(45A), 집햐이를(46A), 기디린다(48A), 으햐인지(49A), 익정으로(53A), 감스로이(54A), 정신슈습 시로햐야(69A), 한사름도(75A), 알바에는(133A), 맛츄리라(150A)
- ㄴ. 동요하나(2B), 구백냥이(4/5/6/7B), 어찌햐야(9B), 햐와달이(21B), 명산대천 굉장하나(23B), 오곡백화(27B), 좋은경개(32B), 형형색색(33B), 대면하나(35B), 새로나는(37B), 어린햐햐(43B), 반편사람(44B), 어디어디(45B), 집햐이를(46B), 기다린다(48B), 햐햐인지(49B), 애정으로(53B), 감사로햐(54B), 정신슈습 새로햐야(69B), 한사람도(75B), 알바에는(133B), 마차리라(150B)

(예11)을 보면, 「탄식가」에서의 ‘·’는 1음절에서도, 2음절 이후에서도, 어휘형태소에서도, 문법형태소에서도 「자탄가」에서는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1931년 문서에서는 마치 근대국어 문헌에서처럼 ‘·’가 보이는데, 1958년 문서에서는 ‘· > ㅏ / ㅑ / ㅡ’의 수정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글마춤법통일안(朝鮮語綴字法統一案)』(1933)을 보면, 한자어에 대해서만 ‘·’ 표기의 변기를 설명(제4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때까지 남아 있던 ‘·’ 표기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6. 후설 평순모음의 합류

장음의 ‘ㄱ’나 ‘ㄴ’가 ‘-’로도 표기되는 현상은 ‘ㄱ’나 ‘ㄴ’가 후설에서 고위와 중저위의 대립을 이루지만 장모음 등의 환경에 따라 ‘-’와 조음 위치가 같아져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 (12) ㄱ. 못보난것(19A), 나난구나(50A), 오난것이(51A), 시로나난(37A)
 나. 못보는것(19B), 나는구나(50B), 오는것이(51B), 새로나는(37B)

4.7. ㅏ > ㅓ

‘ㅏ’ 모음의 ‘ㅓ’ 모음화는 특히 용언 어간의 제2음절(사괴->사귀-, 마초->맞추-, 외오->외우-)에서 폭넓게 일어났지만 부사(골오>고루, 즈조>자주, 모도>모두)나 명사(오좁>오좁, 대초>대추, 고초>고추, 호도>호두) 등에서도 두루 확인된다.

- (13) ㄱ. 아무것도(130A), 기둥에나(81A), 지엇고나(124A)
 나. 아모것도(130B), 기둥에나(81B), 지엇구나(124B)

(예13)을 보면 어미에서도 ‘ㅏ>ㅓ’가 확인된다. ‘15세기의 ‘빙’이 이후에 ‘ㅅ’ 불규칙 동사의 활용에서 [fiw]로 바뀌었는데, ‘w+··’는 ‘ㅏ’로, ‘w+ㅓ’는 ‘ㅓ’로 실현(갓가뵤>갓가온, 더븨니>더우니)되다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모음 조화를 어기고 ‘ㅏ’가 ‘ㅓ’로 바뀐 경우가 많은데, 같은 변화의 축으로 볼 수 있다.

5. 어휘 표현의 교체

1931년의 「소경탄식가」와 이것을 개작하여 간행한 1958년의 「소경자탄가」

의 어휘 표현을 대비해보면, 유의어로 대치한 경우도 있고, 문맥에 맞게 서술어나 명사를 구체화하기도 하고 추상화하기도 한 예들도 확인된다.

- (14) 가. 오곡빅과 풍비하나(27A), 하릴업서 혼자가네(60A), 불덩이가 번쩍한다(84A)
- 나. 오곡백화 풍부하나(27B), 할수없이 혼자가네(60B), 불뎡이가 번척한다(84B)
- 다. 형형식식 모든만물(33A), 집흥이를 차즈들고(46A), 더듬더듬 가노라니(62A), 김흔못을 립한다시(63A)
- 라. 형형색색 공은물결(33B), 집팽이를 집어들고(46B), 더듬더듬 하노라니(62B), 깊은곳을 튼만타서(63B)

(예14L)의 ‘오곡백화’는 다른 지역처럼 /며탁년/으로 발음하지 않고, /면향년/으로 발음하는 전라도에서의 ‘ㅎ’ 발음의 특징과 관련되는 과잉 표기로 보인다. 또, 「탄식가」를 읽으며 「자탄가」로 재탄생시킨 사람은 ‘풍부하다’와 ‘풍비하다’와 같은 유의어 대치를 통해 어휘 표현을 바꾸기도 하고, ‘더듬더듬 가다’와 ‘더듬더듬 하다’와 같이 ‘하다’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표현을 바꾸기도 하였다. 또, ‘모든 만물’을 ‘공은 물결’로 표현한 것은 ‘모든’과 ‘만-’의 의미적 잉여 때문이기도 하고, 만물이 형형색색으로 물결치는 듯한 자연을 좀더 시적으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지팡이를) 차즈들고’와 ‘(지팡이를) 집어들고’는, 이미 소경이 된 「탄식가」의 원작자의 상황이 ‘차즈들고’라는 표현에 반영되었고, 이것을 「자탄가」에서는 소경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의 내용적 특성을 생각한다면 바꾸지 말았어야 할 표현이다. ‘립하다’는 현대국어 자료에서도 확인되기는 하지만 ‘1음절 한자어’와 ‘하다’가 결합된 형태로 생산성이 높거나 활용도가 높은 형태는 아니다. 19세기 말 초기 번역 성경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인데, 성경 텍스트에서도 ‘오다’라고 표현된 경우가 훨씬 자연스럽게 의미 전달이 분명한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조금 더 현대적인 표현으로 교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 시기나

작가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다르게 표현된 어구들을 모아 목록화하고 시기별로, 지역별로, 세대로 정리한다면 언어 연구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의 문체 연구를 위해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자료가 될 것이다.

6. 결론

<소경탄식가>와 <소경자탄가>는 시간상으로 가까운 작품이다. 동시대의 작품이지만 간행 방법이 다르고, 원본의 집필자와 수정본의 편집자가 연령적으로도, 출신 지역상으로도 달라 다양한 접근으로 언어 현상의 추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이다. 국어사에서 ‘구개음화의 표기, 두음법칙의 표기, 어두자음군의 된소화 표기, 원순모음화나 ㅏ > ㅜ의 표기 변화’ 등은 17, 18세기에 전면적으로 일어난 국어학적 특징으로 기술된다. ‘.’의 표기 여부,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의 적용 여부로 인한 표기의 혼재 등도 현대국어 이전 시기의 특징으로 논의된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작성된 「소경탄식가」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확인된다. 반면, 「소경자탄가」는 현대적 감각으로 좀더 쉽게 읽히는데, 「탄식가」가 79세 작가의 작품이고, 「자탄가」가 젊은 수사에 의해 개작되었다는 사실, 두 사람이 각각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이라는 사실, 필사본과 등사본의 이 두 작품 간행 사이에 『한글마춤법통일안(朝鮮語綴字法統一案)』(1933)이 공표되었다는 사실이 두 작품의 차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입체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 변화가 일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언어와 모든 문헌의 표기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즉 특정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같은 언어적 환경이더라도 모든 언어 후보들이 동시에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 단어에 따라, 혹은 주도적 향유자에 따라 차별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화를 겪는 어휘 확산(lexical diffusion)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종교 관련 문헌에는 굳어진 표현들이 많이 쓰이고, 집필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언어의 변화상이 더

디게 반영되고, 문체에 보수적 성향이 드러나 「탄식가」의 언어가 작성 시기보다 더 이른 시기의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작품에서 확인되는 언어 사실을 기반으로 증명하였다.

천주가사는 지식인들, 즉 식자층에 의해 창작되기도 하였으나 문맹자들에게 구전되기도 했던 작품이기에 구어와 문어의 특징이 두루 반영되어 있다. 이에 국문학, 혹은 가사문학을 연구하는 전공자들이 작품의 특징을 논의할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할 언어적, 국어학적, 국어사적 특징들을 같은 내용의 두 작품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살펴보았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영수(2000), 『천주가사 자료집』,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김정호(2018), 「천주가사의 어조와 서술방식 연구」, 『남명학연구』 57, 남명학연구소, 269-297면.
- 김주필(2013), 「ㄷ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현상의 동시적 변화와 특성」, 『진단학보』 118, 진단학회, 95-137면.
- 박용찬(2007), 『외래어 표기법』, 랜덤하우스.
- 안대현(2009), 「한국어 중양어 ‘ㄷ 구개음화’의 발생시기」, 『국어학』 54, 국어학회, 109-136면.
- 유경민(2013),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언해문의 방언 반사론에 대한 재검토」, 『어문학』 121, 한국어문학회, 27-52면.
- 이권형(2013), 「18-19세기 천주가사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환(2007), 「고유어와 한자어 구개음화의 상관성」, 『국어학』 49, 국어학회, 33-68면.
- 전광현(1997), 「근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근대 국어, 7-54면.
- 조한건(2011), 「성경직희광익연구」,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편(2002), 「奇一新譯신구약전서」, 『한국성경대전집』 27.
- 대한성서공회(1904), 『신약전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국학자료실,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원문 서비스.

【Abstracts】

A comparative study on writing and word
change in catholic verse

Yu, Kyungmin

The first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by way of comparison, a manuscript of Catholic verse, *Sokyungtansikga* (1931.03.) and its revised transcription, *Sokyungjatanga* (1958.10.), concerning which comparative analysis has not been duly attempted so far. This paper hereby elucidates some peculiarities of the two documents in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and also puts forward to the academic field of Korean linguistics that the linguistic study on the literature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may enlarge the scope of Korean studies. The final goal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illuminating the periodization of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and the importance of its reconsideration, and to more exquisitely describing that history, by proving that the linguistic phenomenon as found in the literature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written in the modern times for the common people be equal to the character of modern Korean language. Phonological change, though so vehement, does not immediately change the language of all people nor is reflected in the notation of every literature. It is evident that lexical diffusion is found in the region of every language in all ages. But all such words as enable to be changed is not concurrently changed but one by one and steadily. Sound change appears to spread, in that manner, to those words. For this reason, we need to observe the diverse sources of Korean language, including the Protestant and the Roman Catholic

documents that deserve the much more interest of scholars belonging to the field of the study. Christian literature in Korea, published in the period of upheaval with regard to the change of Korean language, tends to show its excessively conservative notation, which illustrates the period of modern Korean language. The linguistic study of that literature like this paper, thus, is conducive to the better understanding of periodization in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Key words : Catholic verse, Sokyungtansikga, Sokyungjatanga, Handwritten version, Korean linguistics, Korean language history, Lexical changes, Orthography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11월 18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11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